



ebook.
cult21.or.kr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보 월간 **서산의 숨겨진** | 비매품(통권 제329호)

발행일 2011년 3월 10일 | 정기간행물 등록 충남 라 1092 | 등록일 1996년 5월 9일

발행인 이준호 | 편집인 김영철 | 인쇄인 이남진

발행처 서산문화원 | 주소 서산시 읍내동 516 | 전화 ☎041-669-5050

디자인 및 인쇄 서산인쇄공사(☎041-664-0001~3)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서산문화원보(비매품) | 정기간행물 등록 총남 라 1092(1996. 5. 9)

서산의 봄길

통권 제329호

2011 * 03



서산문화원



목 차

2011년 • 3월호



보춘화(報春花) 「한국춘란」

'봄을 알리는 꽃'이라 하여
보춘화(報春花) 혹은 춘란(春蘭)
이라고 불리운다.
자신의 몸 색깔로 피워낸
꽃의 자태가 소박하면서도
귀태가 난다.

- 03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의 관계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 04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한기홍 / 컬처플러스 이사)
- 08 선사시대 유적을 보호하자 (이강열 / 학예연구사)
- 10 서산의 문화인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12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해 (이상호 / 풍수지리 강사)
- 14 클라리넷 (이성관 / 클라리넷 강사)
- 17 스마트폰과 문화 (이학준 / IT 칼럼리스트)
- 20 화춘회
- 23 백두대간(白頭大幹)과 13정맥(十三正脉) (송용삼 / 성환문화원장)
- 26 서산갤러리 (정민주 / 큐레이터)
- 28 특별한 날 특별한 요리 선물 (홍윤경 / 서산요리학원원장)
- 30 2011년 실버교육단 발대식 및 소양교육 실시
- 31 2011년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 32 문화원소식
- 33 시정소식

www.daintec.co.kr

다인테크(주)-홈페이지제작,유지보수관리 전문기업



총괄 대표이사 류용두

안녕하십니까?

다인테크(주), 펜션월드넷(주), (주)다인투어 총괄 대표이사 류용두입니다.
늘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인테크(주)는 충청권 최대의 온라인회사로서 랭키기준 전국순위 2위의 웹에이전시로서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관리** 전문회사입니다. 펜션월드넷(주)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국내 최고의 **펜션온라인예약대행** 전문회사입니다.

미래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소셜웹, 시멘틱웹의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 준비된 모바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품격높은 맑고 투명한 올바른 여행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제작/유지관리@웹호스팅/웹프로모션@인터넷방송/웹솔루션개발
@포탈사이트운영(안면도넷외 22개 여행포탈사이트운영)

충남 서산시 동문동 260-1번지 삼일상가(하나은행)3층
전화:041-666-2882, 팩스:041-681-9149



DAINTEC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꿈꾸는 다인테크(주)

DAINTOUR
아름다운 여행스케치 - (주)다인투어


PENSIONWORLD
전국실시간펜션포탈 - 펜션월드넷(주)

신나라 꽃나라

경조화환 / 꽃바구니 / 전국 꽃배달



충남 서산시 예천동 503번지

TEL : (041) 662-6789 H·P : 010-2080-6780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의 관계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문화와 예술을 간단명료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문화란, 의지(意志)와 정서(情緒)를 바로잡아 조화로운 전인(全人)을 만들어 내는 기초로서 지성과 정신을 포함한 교육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술이란, 문화가 만들어 낸 창조적 산물로서 문화가 모체(母體)가 되는 나무역할을 하게 되면 예술은 문화라는 나무에 피어나는 꽃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에 뿌리를 두고 먼 미래를 향해 정진해나가는 가치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대장정 속에 피어나는 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문화는 정신이요, 예술은 환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가해야 비로소 이 둘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뿌리가 없는, 즉 생명력을 잃은 나무에서는 꽃이 필 수도 없지만 피는 꽃이 있어도 예술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지고 보면 문화와 예술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내포하면서 서로 보완의 관계 또는 서로 의존의 관계 등을 이어가면서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획득한 능력과 습관에서 창출되는 정신과 기능의 발양이 곧 문화요, 예술인 것이다.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크나큰 힘의 원천이며 행복을 창조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살 찌우고 정신세계를 넓힐 수 있는 정신적 요소가 함축된 것으로 본다. 즉, 작가의 혼과 열정이 배어있는 형태의 것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예술은 과학적 기술과는 달리 인간의 주관적 내부의식의 표현이고 감성으로 표현되는 특수함이 있다고 본다.

영혼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미적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작품이요 예술이라면 그 것은 반드시 문화라는 나무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생명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화라는 나무는 예술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예술의 모체인 것이다.

문화와 예술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은 천륜처럼 불가분의 관계임을 굳이 강조치 않아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도 지나고 지긋지긋하던 구제역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좋은 때에 넘쳐나는 문화와 예술의 마당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감상의 기회를 가졌으면 싶다.

서산 명종태봉에 관한 일고찰

차례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문헌상 나타난 장태제도
- III. 명종태봉에 관한 고찰
- IV. 맺음말



한 기 홍
컬처플러스 이사
서산향토문화연구회원

둘째, 태호(胎壺)이다. 태호는 귀가 4개 달린 도자기로 태를 넣어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태호는 분청사기와 백자 두 종류가 있는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분청사기가 자취를 감추고 백자로 대체된다. 이는 조선의 도자기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호는 관요에서 제작된 당대의 대표 도자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보니 이를 노리고 태봉을 도굴하는 일이 빈번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경술국치 이후 이왕직⁹⁾에서 전국의 태봉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에 이봉하는 명분과 계기를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셋째, 태지(胎誌)이다. 태지는 태호와 함께 태함에 넣고 매장하는 석재로 된 표식이다. 태지에는 태주인공의 사주와 장태때의 사주를 기록한다. 일예로 문종과 인종의 태지는 아래와 같다.

9) 경술국치 이후 이씨왕가의 관리를 위한 기구



(고려시대 태호)



(조선시대 태호)

永樂十二年甲午正月三日生
文宗大王胎
藏于榮州郡上里面
昭和四年月日移藏

(문종태지)

皇明正德十年二月二十五日
戊時生
世子崙胎正德十六年正月十七日午時藏

(인종태지)

태지를 적는 형식은 태주인공의 사주와 장태 때의 사주를 적는다. 임금일 경우에는 주상전하(主上殿下), 세자일 경우에는 세자아지씨(世子阿只氏), 대군일 경우에는 대군아지씨(大君阿只氏), 공주일 경우에는 공주아지씨(公主阿只氏)라 적는다. 그리고 태지의 내용 중 왕이거나 왕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글자(文자와 世자)는 통상적으로 줄을 바꿔서 올려 쓴다.

넷째, 석물(石物)이다. 태봉의 석물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태주인공이 왕으로 등극하여 가봉된 태봉이라면 화려하고 장엄한 석물이 있고 가봉되지 않은 태봉이라면 석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존재한다. 석물이 있는 경우는 태함 위에 부도 형식의 석물을 설치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석함의 일부가 지상으로 돌출되어 석물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경우이다. 가봉된 태봉의 경우에는 화려하고 장엄한 석물과 더불어 바닥에도 전석을 깔고 그 둘레에 팔각형의 돌난간을 설치한다. 조선초기에는 국왕 이외의 태봉에도 돌난간을 설치하여 왕실의 위엄을 나타냈으나 세조때에 이르러 이를 금하게 된다.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어태 및 왕세자 원손의 태실은 모두 돌난간을 설치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세조실록』 8년 8월 22일

그러나 가봉된 태봉의 경우에는 예외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후로도 계속 돌난간을 설치함을 여타 태봉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섯째, 태비(胎碑)이다. 태비는 태주인공을 알려주는 비석으로 묘지에 있는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태주인공이 왕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왕이나 왕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태비를 세웠다. 전면에는 태의 주인공을 그리고 뒷면에는 사주, 장태일시 등을 기록 하였다. 형태는 장방형의 대좌위에 연꽃무늬로 장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가봉된 태봉에서는 돌거북 형태의 비석받침에 용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원래의 태비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로운 태비를 새로 세웠다. 그리고 중수일 경우에는 뒷면의 비문 옆에 중수년월일을 새로 새기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금표(禁標)이다. 금표는 태봉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으로 금표비(禁標碑), 하마비(下馬碑), 화소비(火巢碑) 등이 있다. 금표비는 태봉 주변에서 가축의 방목이나 경작, 벌목 등을 금지할 목적으로 세우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태봉을 조성하기 위한 역의 부담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경작지가 축소되고 금표지역 내에서는 강제이주나 분묘의 경우 강제로 이장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하마비는 비석이 있는 곳에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걷도록 할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지역이 성역임을 나타내거나 경의를 표하게 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이다. 화소비는 산불을 방지할 목적으로 태봉 둘레에 해자를 파고 그 밖으로 풀과 나무를 제거한 후 설치한 비석을 말한다.

2-6) 연구문제

명종태봉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6가지의 태봉 구성요소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서삼릉 이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현장에 소재하고 있는 유물 중 태비와 석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태함은 매장되어 현장에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굴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연구에서 제외 하였다. 이에 현장에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적 접근법, 사진자료적 접근법, 그리고 풍수지리학적 접근법의 방법으로 명종태봉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명종태봉에 관한 고찰

다음은 명종태봉과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 사진자료, 기타 제자료들이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명종태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3-1) 문헌자료적 접근

가. 서산시지

(1)명종대왕태실비 (明宗大王胎室碑)

－ 소 재 지 :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태봉골

－ 시 대 : 1538년(중종33)

－ 유적현황 : 운산면 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해미방향으로 약5Km 정도 가면 도로 좌측으로 문수사(文殊寺)로 들어가는 태봉리 마을 입구에 이르는데 명종대왕 태실은 도로에서 약 1Km 정도 들어간 해발 약 130m의 태봉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태실이 위치한 정상은 약 40여 평의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8각 난간을 두른 부도와 그 뒤편에 3기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태실은 높이 71Cm, 각변이 약2m인 8각 난간이 둘러져 있고 난간 내부에 방형의

대좌위에 태함을 넣은 석종형 부도의 태실이 있다. 태실 위에 8각 옥개석을 놓고 보주형의 석재로 마무리 하였으며 전체형태는 조선시대 부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전체높이 273cm, 태실 90cm) 태실 앞에는 3기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좌측이 1538년(중종 33)에 세운 것이다.

이 비는 방형의 지대석(64×23×88cm) 위에 화강암 비신(55×14×86cm)을 올렸으며 그 위에 연화형 옥개석(72×33×22cm)을 올렸다. 비 전면 중앙에는 ‘대군춘령아씨태실’이라 각서되어 있다.

가운데의 비석은 1546년(명종 원년)에 세운 것으로 귀부와 이수를 갖추었고 지대석과 귀부는 일석이다. 이 비는 귀부형 지대석 위에 화강암 비신(60×20×123cm)을 올렸으며 그 위에 옥개형 이수(57×36×72cm)를 올렸다. 비 전면 중앙에는 ‘주상전하태실’ (主上殿下胎室)이라 각서되어 있다.

우측의 비는 가운데 비의 신비(新碑)로 1711년(숙종 37)에 예조참의 송징은(禮曹參議 宋徵殷)이 호서(湖西)에 가서 삼조(三朝)의 태봉 석물(石物)을 손질하면서 명종의 태봉은 비석이 전부 손상되어 다시 세워 개석한 것이다.(60×20×116cm)

나. 명종태봉 복원 후 세운 비의 비문

明宗大王胎室 (명종대왕태실)

이 胎室은 明宗大王의 胎室이다. 明宗大王은 朝鮮 13代 王으로 在位期間은 1545~1567년이다. 中宗 29年(1534)에 誕降하시어 明宗 22年(1569)에 34歲로 昇遐하시었다. 朝鮮 11代 王 中宗의 二子이시며 朝鮮 12代 王 仁宗의 弟이다. 妃는 仁順王后 沈氏이시며 12歲로 卽位하여 母后 文定王后가 垂簾聽政 하셨다. 陵은 泰康陵의 康陵에 禮葬되었으며 여기 明宗大王의 胎室이 있으므로 여기를 胎封里 胎封山이라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胎室은 籍碑文에 依하면 中宗 33年(1538) 2月 21日에 建立하고 其後 明宗元年(1546) 10月에 碑 建立을 하였으며 其後 다시 肅宗 37年(1711)에 碑 改石을 하였다. 其後 오랜 歲月을 두고 땅에 묻히고 굴러 떨어져 있던 것을 永久히 保存하기 爲하여 金鍾泌 國務總理께서 1975년 7월에 옛 모습대로 復元하셨다.

다. 호산록

胎峯在文殊寺左肩 (태봉재문수사좌견)

明宗大王胎入歲峰頂又作胎寺三間峯之下胎直十餘家(居)禁伐禁火

(명종대왕태 입 세 봉 정 우 작 태사삼간봉지 하 태 직 십 여 가 (거) 금벌금화)

태봉(胎峯)은 문수사(文秀寺)좌측 어깨 편에 있으니 명종대왕(明宗大王)의 태를 묻은 곳이다. 봉우리 위에다 또 태사(胎寺)三間을 지었으니 봉우리 아래에는 태직이十여호가 살면서 벌목도 금지하고 산불도 금지한다.

(다음호에 계속)

선사시대 유적을 보호하자

서산은 지형적으로 동쪽에 가야산이 있어 높고, 서쪽은 낮은 구릉과 평지가 있는 전형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이다. 또한 서쪽의 끝에는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다. 이처럼 자연적인 혜택을 선사시대 인들은 십분활용하여 생활한 결과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는 패총 유적을 서쪽의 낮은 구릉과 평지의 지형에서는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을 만들었다.

패총(貝塚)유적은 모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과거 바다였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산읍 대죽리 지역에 2곳, 대산읍 운산리 토끼섬, 지곡면 중왕리 왕산마을에 패총유적이 있다. 대죽리와 운산리 토끼섬 패총은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없어지고, 유일하게 지곡면 중왕리 왕산패총만이 남아있다.



학예연구사
이 강 열



(지곡면 왕산패총)

특히 왕산패총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토기가 발견된 점이 흥미롭다. 패총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채취하고, 해산물의 수확여건이 어려워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단기간에 형성되지만, 이곳 중왕리 패총은 풍부한 해산물로 인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걸쳐 오랜 기간에 걸쳐 선사시대 사람들이 흔적이 남아있어 중요하다.

패총유적의 경우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패총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해산물을 분류하여 어떤 종류의 해산물을 먹었는지에 대한 식생활분석이 가능하다. 이외에 패총에서는 빚살무늬토기, 석기 등 생활도구와 함께 해산물 채취를 위한 어로도구인 낚시바늘을 비롯하여 조개껍데기를 활용한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다양한 당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기의 신석기유적에 비해 청동기시대로 내려오면 유적의 종류와 수에 있어서 그 증가가 눈에 띈 정도이다. 서산지역 청동기시대 관련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미면 휴암리 유적을 포함하여 7곳, 유물산포지, 고인돌 등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27곳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 또한 관내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해미와 고북에서 그 빈도가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낮은 구릉과 평지의 발달이 현저한 곳이 이들 지역이기 때문이다.

발굴조사 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을 통해 그 당시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기에는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중기에는 방형이나 원형의 주거지로 규모가 축소된다. 주거지 내부에는 불을 핀 노지(爐址)가 있고, 움집형태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세웠던 기둥과 기둥 구멍을 확인 할 수 있다. 전기의 주거지는 해미면 기지리유적, 고북면 신송리에서 확인되며, 방형의 주거지의 경우 1968년부터 70년까지 4차에 걸쳐 조사된 해미면 휴암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학계에서는 ‘휴암리유형’으로 불리고 있는 주거지 유형이다. 원형의 주거지는 앞서 언급했던 해미면 기지리유적에서 세장방형 주거지, 방형주거지와 함께 확인되어 전기부터 중기로의 변화상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해미·고북 저구릉 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선정은 탁월하다. 해미 기지리 유적은 앞 시기인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음암 부장리 유적의 경우 백제시대 주거지와 혼재해 있어 비록 시기를 달리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주거유적에서는 청동기인들이 사용하였던 토기와 석기류들이 주로 확인된다. 토기는 일반적으로 곡물의 저장이나 생활도구로서 무문토기가 활용되었으며, 석기의 경우 농경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반달돌칼, 돌도끼, 돌보습 등 해당작업에 필요한 전문도구가 만들어진다.

발굴조사 된 유적이외의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의 경우 지하에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유적들은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오랜기간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을 매장문화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포함지역일 경우 반드시 보호되어야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사시대 유적의 경우 문헌기록에 나오지 않는 생활상이나 문화들은 오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선사 유적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서산군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서산의 통일신라시대 지명은 부성군으로 문헌에 전하는 최초의 서산지역 군수는 최치원이다. 그의 출생은 857(헌안왕 1년)이고,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신라말기 학자·문장가이며, 본관은 경주, 자는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다. 경주 사랑부(沙梁部) 혹은 본피부(本彼部) 출신으로 견일(肩逸)의 아들로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가문 출신이다. 특히 신라말기 3최의 한사람이다.

그의 성장과정에서 12세(경문왕 8년 868년)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여 18세(874년)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한 빈공과에 급제한다. 18~20세때에는

2년간 낙양을 유랑하면서 시작에 몰두-금체시 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 30수 1권을 짓고, 20세(헌강왕 2년 876년)에는 당나라 선주표수현위가 되었다. 이때 공사간에 지은 글들을 추려 중산복 께집1부 5권을 내었다. 21세(877년)에는 겨울에 표현수위를 사직하고, 양양 이위의 문객이 되었고, 곧이어 회남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이 되었다. 23세(879년)에는 중국 당나라시대 최고의 민란인 황소의 반란이 일어났다. 고변이 제도행영병마도통이 되어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의

책임을 맡았고, 그 뒤 4년간 고변의 군막에서 표·장·서계·격물 등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그 공적으로 승무랑 전중시어사내공봉으로 도통순관에 승차되었으며 겸하여 포장으로 자급어대를 하사받았다. 29세(885년-17년동안 당나라에 머뭄)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29세(현강왕, 885년)에는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에 임명되었고 30세(886년)에는 대승복사비문의 명문을 남겼으며 당나라의 저작들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진헌하였다. 33세(진성여왕3년, 889년)에는 전국이 내란에 빠졌고, 34세~36세(890~982년)에는 대산군(전북 태인), 철령군(경남 함양), 부성군(충남 서산)의 태수를 역임하였다. 37세(893년)에 하정사에 임명 되었으나, 도둑들의 횡행으로 가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사신으로 당나라에 간 일이 있었다. 38세(894년)에는 시무책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40여세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행적은 경주의 남산, 강주(의성의 빙산), 합천의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함포현(창원의 별서), 동래의 해운대를 유람하였다. 만년에 모형(母兄)인 승 현준 및 정현스님과 도우를 맺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머물렀다. 생물연대는 미상이나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에 의하면 52세인 908년(효공왕12)말까지 생존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그는 1020년(고려 현종 11년)에 내사례 추증되고, 1021년 문창후로 추시 되어 문묘에 배향되었다.

조선시대에 태인의 무성서원, 함양의 백연서원, 영평의 고운영당, 대구 해안현의 계림사등에 제향되었다. 우리지역에도 부성사(지곡면 산성리 소재)에 배향되었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계원필경』 20권, 『금체시』 5수 1권, 『오연칠언금체시』 100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중산복괘집』 1부 5권, 『사록집』 1권, 문집 30권이 있다. 사서로는 『부석존자전』 1권, 『법장화상전』 1권, 『석이정전』, 『석순응전』, 『사산비명』이 있는데, 이중 『계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산비명』뿐이고 그 외는 『동문선』에 시문 약간, 사기등에 기·원문·찬 등 그 편린만 전할 뿐이다.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해

흔히 풍수지리가 무엇이냐고 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누구나 풍수지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설명하려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선 풍수(風水)라는 어원부터 알아보면 장풍득수의 줄인 말로써 바람을 피하고, 물을 얻는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어서 사세인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 중 어느 하나 함한 곳이 없는 곳을 택하여 생자가 생활하는 택지(住宅)와 사자의 안식처인 묘지(陰宅)로 구분 할 수 있다.

풍수 지리학이란 천문 지리학에서 하나의 유파로 갈라져 하늘을 보고 길흉화복을 미리 예견 할 수 있는 천문학에 반해, 인간이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땅의 이치를 인간중심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연구 발전 계승하는 학문을 풍수 지리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풍수 지리학에서 우선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산(山)과 물(水)의 래거에 따른 길흉과 그 길흉에 따른 동기 감응론에 입각하여 산천의 기운 중 청기(맑고 좋은 기)가 머물고 있는 곳을 택하여 음택이나 주택지로 선정하여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생전 또는 사후(후손)에까지 좋은 현상이 이어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풍수 지리학에서 내포하고 있는 풍수라는 글귀를 살펴보면 풍수는 바람과 물의 관계로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람을 만들기 때문에 물(水)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풍수 지리학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산(山)과 물(水)의 흐름인데 “산(山)이 가면 물(水)도 따라 간다.”라는 말이 있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은 인물을 주관하며, 물은 재물을



풍수지리 강사
이 상 호

주관하기 때문에 산만 좋고 수가 없다면 인물은 나오지만 재물이 적게 되고, 물은 좋은데 산이 흉하다면 재물은 있으되 자손중 인물이 없으므로 산수가 수려한 곳에 터를 잡는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풍수지리학에는 두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형기론(形氣論)으로써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산이나 물의 형태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물형론(物形論)이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풍수지리 학자들이 채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기론(理氣論)을 말하는데 이것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기를 통계학을 바탕으로 나경(羅經)-(나침판, 쇠, 패철, 윤도)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방위별로 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기론과 형기론을 병행하는 풍수지리학이 바람직한 풍수지리학인 것이다.

풍수 지리학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학문으로써 일부 중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혼합된 학문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다. 동양 문화권과 일부 서양 문화권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증하여 학문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풍수지리학이 제일 발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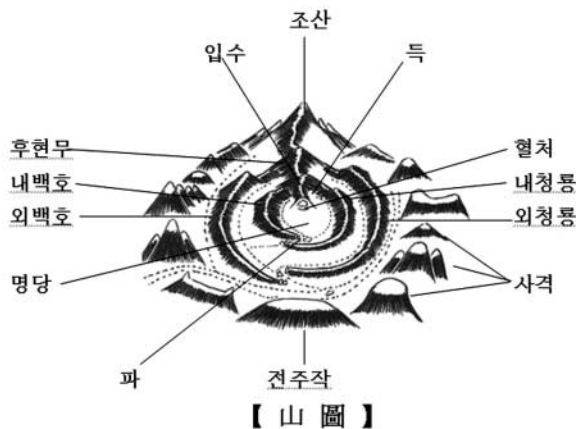
우리들은 늘 풍수지리를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풍수지리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뿐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의 터전을 찾게 되는데 원시사회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땅을 찾는데서 풍수지리가 발생된다.

풍수지리의 기원은 특히 고대 중국에서 발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 동양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서방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발전 계승되고 있는 풍수지리는 고유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은 알게 모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풍수가들로 인한 폐단도 있지만 개선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풍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재조명 되어야 하겠다.



아름다운 선율 클라리넷

클라리넷(독일어: Klarinette, 영어: clarinet, 이탈리아어: clarinetto)은 조옮김 악기로써 서양고전음악 목관 악기 중 하나이다.

1700년경 클라리넷이 처음 선을 보인 이후 좀 더 좋은 음질, 정확한 음높이와 음정, 안정적인 억양을 내는 악기로써의 클라리넷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음들을 손쉽게 낼 수 있는 운지법이었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연주자들과 악기제작자들이 끊임없이 개량을 거듭하여 현대 클라리넷이 발명된 것이다.



클라리넷 강사
이성관

클라리넷은 다양한 크기와 음높이를 가져서 종류가 24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거나 특수한 경우에만 쓰인다. 이런 희귀한 클라리넷을 위해 쓰인 음악들은 Bb조 클라리넷(악기로 도를 연주하면 한 음이 낮은 Bb 소리남)으로 조옮김하여 연주하는 것이 보통이다. A조로 맞춰진 A조 클라리넷도 자주 쓰이며,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악기가 있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17개의 키와 6개의 링으로 만들어진 뱀식 클라리넷 이후의 더 나은 새로운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되며 음악이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클라리넷의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다.

비싼 클라리넷은 아프리카 흑단으로 만든다.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들거나, 혼하진 않지만 쇠로 만들기도 한다. 합성수지로 만든 싼 클라리넷은 초보자용으로 널리 쓰인다. 마개들은 니켈이나 은도금/금도금으로 만든다. Bb조 클라리넷은 약 66cm (A조 클라리넷은 71cm)이고 관 안쪽의 지름은 약 13mm 정도이다.

클라리넷은 보통 다섯 부분(마우스피스, 배럴, 윗 관, 아랫 관, 벨)으로 이루어져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고 각 부분의 마디가 코르크로 싸여있어 서로 끼워서 조립한다. 이 점이 클라리넷을 갖고 다니기 편하고 부분 수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마우스피스(나팔꼭지)는 매우 딱딱한 경질고무로 만든다. 보통 에보나이트나 아크릴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것이 널리 쓰이고 크리스털, 나무, 쇠로 만든 것들도 쓰인다. 서로 다른 재질을 섞어서 만든 것들도 있다. 소리를 내는 것은 너비 약 12,5mm인 리드이다. 이 리드를 나팔꼭지에 붙이고 붙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리드는 갈대(학명: Arundo Donax)로 만드는데 수명이 짧기 때문에 다른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데 성공해서 판매도 되고 있지만 소리가 좋지 않아 널리 쓰이지 않는다. 리드를 나팔꼭지에 붙이는 데는 조리개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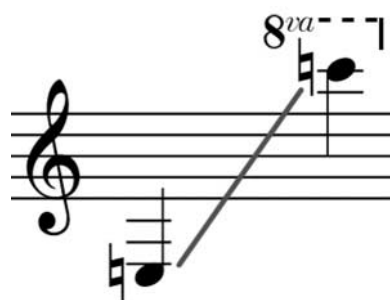
조리개(리드와 마우스피스를 연결시키는 것)의 재질도 다양해서 쇠, 플라스틱, 가죽 등이 사용된다. 독일식 클라리넷을 사용하는 연주자들은 보통 조임줄을 선호한다. 통은 클라리넷을 연구하는 음악 학자들이 왜 이 부분이 살아남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꼭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는 구조지만 섬세한 조율을 하는 데 이용한다. 통을 빼면 클라리넷의 전체 음높이가 다소 낮아진다.

나팔은 클라리넷의 제일 끝 부분으로 가장 낮은 음을 내는 데 도움을 준다. 마개방식이란 각 음들을 소리 내는데 쓰이는 마개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클라리넷의 운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개 방식에 대한 이해는 클라리넷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대 클라리넷은 마개방식에 따라 운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식과 프랑스식으로 나뉜다. 독일식과 프랑스식은 마개방식뿐 아니라 관 안쪽의 지름과 모양, 나팔꼭지와 사용하는 리드도 다르기 때문에 음질과 음색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독일식 클라리넷은 거의 독어권 국가에 한해서 쓰인다. 주로 가내수공업에 의존했던 독일의 악기제작자들에 비해, 19세기를 거치면서 중앙 집중적인 산업화와 해외 식민지정쟁에서 프랑스가 훨씬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은 프랑스식 클라리넷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 악기개량자의 이름을 따서 각각 독일식은 윌러식 클라리넷, 프랑스식은 뱀식 클라리넷이라고 한다. 독일식을 에라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윌러 시스템의 일본식 발음이 한국으로 건너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다.



클라리넷의 음역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가온도(C) 아래의 낮은 미부터 오선보다 여섯 개의 덧줄위의 도(C)까지 아주 편하고 부드럽게 소리 낼 수 있다. 저(살뤼모)음역, 접속부(스포트)음역, 중(클라리온)음역, 고(알타시모)음역으로 이루어져있어 4가지의 전혀 다른 음색을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색은 앙상블에서 마치 여러 개의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소리는 건강한 호흡과 민첩한 혀의 동작에서 빛을 발휘한다. 호흡의 바람 양과 빠르기, 바람의 열고 닫는 혀의 움직임 이것이 음량이나 음색의 여러 가지 표현을 가능케 한다.

클라리넷이 사용되어지는 음악의 장르는 다양하다. 성악, 현악, 관현악, 타악기, 건반악기 그 어떤 악기와도 앙상블이 가능하다. 오래전부터 관현악(오케스트라)에서의 클라리넷이 차지하는 비중성

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클라리넷은 주로 솔로 위주의 연주를 한다. 익살스러운, 경쾌하고 밝은, 무겁고 어두운, 그 외에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최근에는 서양 음악과 동양음악의 전반적인 분야(클래식, 재즈, 팝 연주)에서 조차도 클라리넷은 없어서는 안 될 악기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반 성인들의 색소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색소폰 역시 홀(하나)리드 악기이다. 홀리드 악기의 시작이 클라리넷이다. 색소폰은 클라리넷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B $\flat$ 조, A조) (E $\flat$ 조) (B $\flat$ 조 베이스) (E $\flat$ 조 알토)

것이다. 클라리넷의 연주자는 대부분 색소폰 연주가 능하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

필자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클라리넷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물론 많은 연주를 통해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음색을 들려줄 것이다. 우선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클라리넷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소망한다.



스마트폰의 문화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

2년전부터 한국사회를 점점 변하게 만든 IT 아이템들이 있다. 아이폰을 필두로 2010년을 강타해 버린 스마트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바람에 그칠 듯 보였던 이 2개의 IT 아이템은 현재 한국 사회를 천천히,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빨리 바뀌나가고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뀌나가고 있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마트폰 열풍

2009년 하반기에 하나의 스마트폰이 국내에 드디어 출시하게 된다.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던 스마트폰, 그 당시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07년에 처음 미국에서 등장한 아이폰이 2년하고도 반이 지난 2009년 12월에 KT를 통해서 드디어 국내에 출시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 전에 삼성전자의 옴니아2 시리즈들이 SKT, KT, LGT를 통해서 출시되었지만 아이폰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다. KT와 애플은 아이폰 3Gs, 아이폰 3G의 2개의 모델을 국내에 내놓음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커다란 획을 긋는다.

2010년은 스마트폰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었다. 그와 동시에 국내 휴대폰 점유율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만만치 않게 증가한다. 국내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부터 시작하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A와 지금까지도 삼성전자의 히트 스마트폰으로 자리매김한 갤럭시 S, 팬택 LG, HTC, 소니에릭슨 등 정말 수많은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점유율에 있어서도 과거 1%도 채 못미쳤던 스마트폰 점유율이 어느새 10%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30%까지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의 휴대폰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제품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데 바로 타블릿이라 불리는 아이패드다. 애플은 4월에 아이패드라는 타블릿을 미국에서 발표하고 2010년 12월에 한국에도 출시하게 된다. 그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0년 하반기에 갤럭시 탭이라는 7인치 안드로이드 타블릿을 출시한다. 이런 타블릿들은 향후 2011년에 포스트 스마트폰 아이টে으로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SNS의 열풍,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스마트폰, 타블릿만이 2010년을 강타한 것이 아니다. 2010년에는 SNS의 한국 시장의 시작의 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140자 단문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 그리고 2010년 하반기부터 점점 그 세를 확산하기 시작한 전세계 No.1 SNS인 페이스북. 이 2개의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으며 생활패턴까지 바꿔놓고 있는 중이다. 트위터는 140자의 짧은 글을 전송하고 서로 공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제품이며 최근에 한글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부담이 적으며 팔로어, 팔로잉 개념으로 트위터 사용자들의 글을 자신의 화면에서 볼려고 할 때 서로의 허락 등이 필요 없이 구독의 개념으로 글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에 대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빠른 확산력으로 인해 트위터를 통한 다양한 소셜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고 있으며 개인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공공기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트위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원래 미국의 대학교 커뮤니티 서비스로 시작한 서비스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전세계 No.1 SNS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내에는 트위터보다 더 먼저 소개되었고 또 한글화도 더 먼저 제공되었으나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것은 2010년 하반기부터다. 스마트폰이 한국사회에서 대중화가 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며 그 성장의 폭이 최근에는 트위터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



SNS와 스마트폰의 만남과 그 시너지 효과는?

이들 SNS와 스마트폰의 만남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트위터의 빠른 확산은 수많은 공감대를 일으켰고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으로까지 형성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보통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사회 이슈가 제기되면 리트윗(RT, Retweet,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다시 재전송하는 것)을 통해서 빨리 트위터 상에 확산이 된다. 트위터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본 글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지 등에서 해당 트위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며 그 기사가 세상에 어느 정도 알려지면 TV 뉴스를 통해서 알려짐으로 여론이 형성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묻혀질 수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세상에 드러난 경우가 많다. 온두라스에서 살인오명을 받고 갇혀있었던

한지수씨 사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고 정부가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드러나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SNS의 다양한 기능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생활 패턴들을 바꿔놓기에도 충분했다. 예전에는 어떤 약속을 하거나 모임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내용을 알리고 약속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멘션(Mention, 상대방의 ID를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을 보내고 싶을 때에는 DM(Direct Message, 쪽지와 비슷함)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아니면 페이스북의 메시징 기능을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예전과 같이 문자서비스나 통화를 하지 않고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문자서비스의 경우 1건당 30원이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경우 무선 데이터 요금 정도만 필요하고 대부분이 정액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무료라고 느낄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채팅도 가능하다. 이제는 고전형식이 되어버린 문자서비스,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가 아닌 SNS의 기능을 이용해서 지인들과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PC로 인터넷의 포털서비스(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나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곤 했었다. 물론 직접 종이신문으로 읽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언론사보다 먼저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포털서비스나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기사를 읽는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기사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방식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구입 이후 집에서 PC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여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스마트폰과 SNS의 결합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은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 점유율의 30~50%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SNS가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 속에서 변화를 먼저 예측하고 적응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글쓴이 소개

이 학 준

-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획 겸 개발자
- (주)마크애니 U-biz 사업본부 팀장
- IT 블로그인 학주니닷컴(<http://poem23.com>)을 운영
- IT 칼럼리스트, 강연자로 활동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화 춘 회

지역미술단체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화춘회!

화춘회 창립멤버이자 전회장인 한동철씨를 만나 그 역사와 미술의 매력에 대해 물어보았다.

Q 화춘회의 창립동기와 역사, 회원 등이 궁금합니다.

A 화춘회의 창립 취지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 이 지역 정서에 맞는 그림을 그려 지역 미술문화를 확산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화춘’이 창립될 당시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예술 활동이 낙후되어 있던 때입니다.

1978년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당시 삼성의원 박병관 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미림화실’을 개설하고 일곱 분이 그림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일선 미술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시던 중등 미술선생님들과 뜻을 같이하게 되어 ‘화춘’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연도는 1981년이며 창립회원은 미술을 전공하신 교사 7명과 일반인 8명으로 15명이었습니다. 1981년 12월 24일 ‘숲속의 빈터’라는 생맥주 집에서 창립 모임을 갖고 이듬 해 1982년 5월29일 부터 6월5일 까지 서산문화원에서 창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변한 시청 아래 경찰서의 무덕관 자리를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시회를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죠.

‘화춘’은 서산지역만이 아니고 대전을 제외한 도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장르로 만들어진 예술 단체입니다. 그 후 ‘한국미협서산지부’ ‘서산서도회’ 등여러 분야의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화춘’이 견인차 역할을 한 거죠. 창립 30주년을 맞은 ‘화춘’의 현재 회원은 19명입니다.

Q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1982년 5월 창립전 이후 매해 1회씩 정기전을 가졌고 태안이 분군된 후 태안문화원, 당진 문화원, 서인사랑, 서부평생학습관, 대산고등학교, 제일감리교회 전시 등 총43회의 전시와 향토작가전등에 단체 출품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활동계획은 5월초 32회 정기전이 서산시 문화회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Q 서산의 여러 예술단체 중에서도 화춘회만의 특징과 매력이 있다면?

A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화춘’은 강산이 세 번 변할 3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내분 없이



▲ 1981년 12월 화촌 창립회 현판식

▼ 1985년 5월 설악산 사생여행중



▲ 1991년 11회 화촌전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외부로부터 '30년을 이어온 것은 기적'이라는 찬사를 가꿈 듭니다.

지역민들로 구성되어 이 지역 정서를 담은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미술교육 발전이나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화촌'이 갖는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창립취지에 걸맞도록 이 지역 정서를 표현하는 구상 쪽 작업만 고집하였으나 '화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작업의 질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회원간 교류는 어떻게 하나요?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월 1회 월례회와 시년 1월에 정기총회가 있고 기타 애경상문, 타 지역 전시회 관람 등 필요시에 모입니다.

30년 전보다 너무 많이 변화한 사회인 지금은 당초의 취지대로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월 1회 모이는 월례모임은 사실은 야외사생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고장이나 인근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생회를 가졌고 여름 휴가철에는 2박3일 정도의 스케치 여행을 하기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설악산, 주왕산, 월출산, 지리산, 진도, 영광 법성포구, 괴산의 괴강, 금산, 도담삼봉, 사인암 등등... 월례회 날 비가 오면 미술학원을 빌어 누드실기 작업을 하기도 하였었죠.

Q 미술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서예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일반인은 어떻게 감상하고 접해야 할까요?

A 예술이라는 것이 창작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창작품을 접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자에 속하지만요.

창문을 열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에 기분이 좋아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들이 뭐라고 지저귀는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저 좋을 뿐이죠.

조형작품이건 자연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형태를 찾기 보다는 작품 전체의 느낌을 파악하고 그 조형적 질서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품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의 의문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자세 즉 작품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가가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등 의문을 갖고 작품과 대화를 시도할 때 작가의 정신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01년 21회 화춘전



▲ 2011년 30회 화춘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해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점차 감상능력이 축적되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해를 통한 감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밑천이 얇은데 질문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쿠르베가 앙그르에게 “내가 천사를 그릴 것을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릴 천사를 내 앞에 보여 주시오”라고 말했다 합니다. ‘예술의 진정한 역할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술의 의미와 가치도 변화했지요.
‘민중미술’이 억압받던 시대상황, ‘방송금지곡’이 있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술이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날의 예술은 점점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어떤 작품은 추악하거나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죠.
“예술이야말로 현실에의 자각능력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 하나”라고 정의한 이도 있는 걸 보면 우리들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사고력을 예술이 충격을 가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 생각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관객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화춘회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A 기적같이 30년을 버텨온 ‘화춘’이 더욱 질 좋은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더욱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이 ‘화춘’의 바람입니다.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2층 공연장에서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자 유치원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인솔아래 계단을 내려와 전시장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은 손가락으로 전시장을 가리키며 떠들썩하게 지나갔지만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어떤 엄마가 두 꼬마아기들의 손을 잡고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림 앞에서 그림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며 그림 하나하나 앞에서 묻고 설명해 주기도 하는 전시장 안 풍경을 보기도 했죠.
개관식을 빛내주기 위해 전시장을 찾는 모습도 매우 고맙지만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 관람객들이 더 늘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백두대간(白頭大幹)과 13정맥(十三正脉)

Ⅰ 산경표(山經表)의 산줄기를 중심으로....

조선조 영조(英祖)때의 실학자인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에 의해 작성된 《여지고(輿地考)》에 수록되어 오늘날에 《산경표(山經表)》로 널리 알려진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 개념에 의하면 우리민족의 고유한 지리의 사상이 자연지리(自然地理)의 절대원칙은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라고 전한다.

앞의 《산경표(山經表)》에는 ‘우리민족의 산줄기를 1대간(大幹) 1정간(正幹) 13정맥(正脉)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전하는데 그 산줄기를 대략 검토하여보면 다음의 산줄기로 확인이 된다.



성환문화원장
송 용 삼

1) 백두대간(白頭大幹)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 산줄기의 근원(根源)이라는 백두산(白頭山)에서 출발을 하여 대략적으로 다음의 산줄기를 거쳐 지리산(智異山)에 이르는 가장 길고 큰 산줄기로서 그 산줄기가 단 한 번도 끊어지거나 물(水)을 건넌이 없이 이어진 산줄기를 말한다.

Ⅰ 백두대간(白頭大幹)

백두산(白頭山), 연지봉(燕脂峰)···허항령(虛項嶺)···황토령(黃土嶺)···황초령(黃草嶺)···철령(鐵嶺)···금강산(金剛山)···진부령(珍富嶺)···미시과령(彌時坡嶺)···설악산(雪嶽山)···오색령(五色嶺)···구룡령(九龍

嶺)…오대산(五臺山)…대관령(大關嶺)…백복령(百福嶺)…
두타산(頭陀山), 청옥산(靑玉山)…대박산(大朴山:일명咸白山), 태백산(太白山)…백병산(白屏山)…소백산(小白山), 죽령(竹嶺)…도솔산(兜率山)…계림령(鷄立嶺)…조령(鳥嶺), 이화령(伊火嶺)…희양산(曦陽山)…속리산(俗離山)…추풍령(秋風嶺)…황악산(黃岳山)…삼도봉(三道峰)…덕유산(德裕山)…육십령(六十嶺)…여원치(女院峙)…지리산(智異山:白頭大幹止於智異山鷲嶺以下則爲傍支今作洛南正脉)

위의 내용에 나타난 산줄기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산줄기에 나타난 산의 덩치나 크기가 익히 널리 알려진 명산의 산줄기들임을 알 수 가 있다.



2) 장백정간(長白正幹)

장백정간(長白正幹)은 백두산에서 뻗어 나가던 백두대간의 산줄기인 황토령(黃土嶺)에서 동북/서남 방향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로서 함경북도(咸鏡北道)의 두만강(豆滿江)에 위치한 녹둔도(鹿屯島)일대에 와서 멈추는 산줄기

3) 낙남정맥(洛南正脉)

낙남정맥은 백두대간의 맨 마지막 산인 지리산에서 분기하여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서 낙동강(洛東江)의 남쪽에 있는 산줄기

4) 청북정맥(淸北正脉)

청북정맥은 백두대간의 낭림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서 청천강(淸川江)의 북쪽과 압록강(鴨綠江)의 남쪽사이에 있는 산줄기

5) 청남정맥(淸南正脉)

청남정맥은 백두대간의 낭림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서 청천강의 남쪽과 대동강의 북쪽사이에 있는 산줄기

6) 해서정맥(海西正脉)

해서정맥은 백두대간의 두류산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서 대동강의 남쪽과 예성강의 북쪽 사이에 있는 산줄기

7) 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城南正脉)

임진북예성남정맥은 백두대간의 개연산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예성강의 남쪽과 임진강의 북쪽사이에 있는 산줄기

8) 한북정맥(漢北正脉)

한북정맥은 백두대간의 분수령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한강의 북쪽과 임진강의 사이에 있는 산줄기

9) 낙동정맥(洛東正脉)

낙동정맥은 백두대간의 태백산에서 분기하여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낙동강의 동쪽과 동해바다 사이에 있는 산줄기

10).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脉)

한남금북정맥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분기하여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한강의 남쪽과 금강의 북쪽 사이에 뻗어있는 산줄기로써 속리산에서 안성의 칠현산 구간까지 뻗은 산줄기

11) 한남정맥(漢南正脉)

한남정맥은 한남금북정맥이 안성의 칠현산 까지 온 후에 한줄기가 방향을 서북쪽으로 바꾸어서 뻗은 산줄기로써 한강의 남쪽과 안성천 사이에 있는 산줄기

12) 금북정맥(錦北正脉)

금북정맥은 한남금북정맥이 안성의 칠현산 까지 온 후 한줄기가 방향을 서남쪽으로 바꾸어서 뻗은 산줄기로써 금강의 북쪽과 안성천의 남쪽에 있는 산줄기

13)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脉)

금남호남정맥은 백두대간의 곰치에서 분기하여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벽골제의 남쪽과 전라남도 일대를 흐르는 산줄기

14) 금남정맥(錦南正脉)

금남정맥은 진안의 마이산에서 분기하여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금강의 남쪽과 전라북도의 동진강/만경강의 북쪽 일대를 흐르는 산줄기

15) 호남정맥(湖南正脉)

호남정맥은 백두대간의 곰치에서 분기하여 서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로써 벽골제의 남쪽과 전라남도 일대를 흐르는 산줄기

서산갤러리

큐레이터 정 민 주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작가와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 !!

내포지방에서도 가장 고유한 문물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서산에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작가와 시민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미술전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서산시 중앙통 사거리 빈폴 빌딩 4, 5층 (각 50평) 에 자리 잡은 서산갤러리가 그것이다.

2009년 12월 1일 100인 초대전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다음으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관한지 1년을 조금 넘긴 기간이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제법 알려져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사실 개관시 주변의 축하와 격려도 많았지만 주위 분들의 염려의 눈길도 많았다. 갤러리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태생한 문화시설이다 보니 지역민과 호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난제와 함께 무엇보다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라는 문턱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선은 갤러리가 지역 주민에게 훨씬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화폭에 친근한 소재를 담은 작품을 위주로 전시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갤러리 안쪽에는 대추나무 의자를 배치하여 오시는 분들이 작품 감상과 더불어 소박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산갤러리 내부)



(서산갤러리 내부)



(도신스님의 선화전)



(이영수 화백의 백호도)

여기에 매 달마다 새로운 전시로 지방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가치 있는 작품을 전시하였다. 12월 개관시 100인 초대전에서 여러 작가분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인 경인(2010)년을 맞이하여 서산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활기찬 한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독특한 석채화로 잘 알려진 이영수 화백의 백호도를 전시하여 백호의 기운이 살아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그 해 3월에는 서산의 노래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서광사 주지도신 스님의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한 개인 선화전을 선보여 지역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았다. 이렇듯 미술애호가들의 관심을 끄는데 힘쓰는 한편 서산지역 미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아 지역작가분과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시장을 개방하였다.

이제는 서산지역 뿐 아니라 조금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차츰 저희 갤러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올 3월에는 파격적인 필치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였던 걸레스님으로 유명한 중광스님 유작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어 서산 시민들을 위한 미술세계의 저변확대와 지역미술 문화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듯 하다. 갤러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작품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지역민들과 애호가들이 들러 채찍질을 해주길 바랄 뿐이며 앞으로 지역 분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여러 작가 분들이 자주 들러 서로의 작품세계를 비교 평가 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명소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관람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00~18:00)
- 휴관일 (일요일, 공휴일)

■ 주 소 서산시 동문동 931-4 빈폴빌딩 4, 5층

■ 전 화 : 041-665-0753

■ 홈페이지 : <http://seosangallery.kr>

■ 2011년 전시행사 및 대관 일정

- 현재 2. 9 ~ 3. 3 : 정태궁 초대전
- 2011. 3. 10 ~ 4. 9 : 중광스님 기획전
- 2011. 4. 12 ~ 4. 30 : 장순업 초대전

특별한 날 특별한 요리 선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요리에 담았다. 뭔가 색다르면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선물을 직접 만들어 선물하면 어떨까?



서산요리학원원장
홍 윤 경

처음 선물하는 떡으로 참 좋은 단호박 케이크

[재료] 원형 무스링(2호크기)1개 분량

멥쌀가루 5컵, 단호박 작은 것 1통, 설탕 5큰술, 물 2큰술, 호박씨약간

[만드는 법]

- ① 단호박 반통은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내 찜기나 전자레인지에 푹 찐다.
- ② ①의 단호박을 부드럽게 으갠 다음 면 보자기에 담아 꼭 짜서 단호박 퓨레를 만든다.
- ③ 남은 단호박 반통은 나박썰기와 각둑썰기를 한 다음 설탕에 버무린다. 수분이 생기면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④ 쌀가루 2컵에는 물 2큰술을 부어 잘 비벼주고, 쌀가루 3컵에는 ②의 단호박 퓨레 3큰술을 넣어 비벼준다.
- ⑤ 각각의 쌀가루를 체에 내린 다음, ③에서 썰어 둔 단호박을 넣어 잘 섞는다.
- ⑥ 흰 쌀가루에 설탕을 2큰술, 단호박을 넣은 쌀가루에 설탕을 3큰술씩 각각 넣어 잘 섞고 찜기에 노란색→흰색→노란색→쌀가루순으로 안친다.
- ⑦ 떡 위를 호박씨로 장식한다. 찜기를 김 오른 물 솥에 올려 20분간 찌고 5분간 뜸 들인다.



다이어트와 미용에 좋은 녹차를 넣은 미니 녹차 약식

[재료] 찜기(25cm크기)1개 분량

찹쌀 4컵, 물 1/2컵, 녹차가루 3큰술, 밤 10개, 대추 10개, 호두 10개, 잣 2큰술, 설탕 1/2컵, 꿀 2큰술, 진간장 1/2큰술, 참기름 3큰술, 계피가루 1작은술, 소금물(물1/2컵에 소금1/2큰술)

[만드는 법]

- ① 찹쌀은 잘 씻어 최소 3시간 이상 불린 다음 물기를 뺀다.
- ② 젖은 면보자기를 간 찜기에 씻어놓은 찹쌀을 안치고 40분간 찜다. 찜기에 쌀을 안칠 때 가운데 움푹하게 구멍을 내면 쌀이 고루 잘 찜진다.
- ③ 찹쌀을 찌는 중간에 소금물을 두 번에 나눠 고루 뿌리고 주걱으로 잘 저어 준다.
- ④ 냄비에 물 반 컵과 설탕 4큰술을 넣어 시럽을 만들고 4~5등분한 밤과 대추를 넣어 살짝 익을 정도로만 졸인다.
- ⑤ 찹쌀은 뜨거울 때 볼에 부어 설탕 반 컵을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어준다. 이때 주걱을 세워 섞으면 밥알이 으깨지지 않아 좋다.
- ⑥ ⑤에 분량의 참기름, 진간장, 계피가루, 녹차가루, 꿀, 밤, 대추, 호두와 잣을 넣어 잘 섞는다. 용기 위에 면보자기를 씌워 간이 충분히 배도록 상온에서 2시간 정도 둔다.
- ⑦ ⑥을 찜기에 안쳐 다시 30분 정도 찜 후, 5분간 뜸을 들인다.
- ⑧ 찜진 약식이 뜨거울 때 잣을 섞은 다음 미니 무스링이나 모양틀로 찍어 담아낸다.



하이트 데이에 사랑 대신 커피양갱

[재료] 양갱 20개 분량

시판 흰 앙금 500g, 설탕 70g, 물 500g, 한천가루 15g, 물엿 30g, 물에 탄 커피(물1/2컵에 인스턴트커피 3큰술)1컵, 잘게 자른 호두 1/2컵, 럼주 1큰술, 모양틀

[만드는 법]

- ① 물 500g 한천가루 15g을 풀어 잘 녹인 다음, 20분 이상 불린다.
- ② ①을 불에 올려 잘 젖다가 분량의 럼주를 넣는다.
- ③ 한천가루가 다 녹으면 설탕 70g을 넣고, 설탕을 완전히 녹여 준다.
- ④ ③이 끓으면 불을 줄인 다음, 앙금을 3~4등분으로 나눠 넣고 잘 저으며 15분간 더 끓인다.
- ⑤ ④의 앙금이 끓으면 물에 탄 커피를 넣어 바닥까지 잘 저으며 10분간 더 끓인다.
- ⑥ 마지막으로 분량의 물엿을 넣고 고루 섞은 다음 잘게 자른 호두를 넣는다.
- ⑦ 준비해 둔 틀에 완성된 양갱을 붓고 단단해질 때까지 실온에서 굳힌다.





2011년 실버교육단 발대식 및 소양교육 실시



지난 2011년 3월 2일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에서는 40여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모여 발대식 및 소양교육이 열렸다. 금년도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자의 자긍심으로 활기찬 노후,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 확충의 장이다.



서산문화원 실버교육단 지원자들은 교육형 강사로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문화재해설, 스포츠 댄스, 전통춤, 한문, 서예 등 특기 및 경력을 가진 노인을 선발하여 서산문화원 및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강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 봉사를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분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도모 및 자긍심을 높이며 삶의 보람과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2011년도 상반기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강좌는 신규 강좌, 생활 공감 강좌, 전문가 육성 강좌, 임산부 강좌, 아동·청소년 강좌로 이루어졌으며 2월 14일부터 전 과목별을 선착순 모집하였다.

특히 키즈발레는 항상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순번을 기다리는 등 접수시 초만원에 이르렀으나 금번부터는 현장추첨으로 접수를 실시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번에는 한문서예, 클라리넷 등의 문화강좌가 신설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각 강좌별 심화과정을 추가하여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풍수와 문예창작 등 인문강좌도 신설되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양질의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결과 키즈발레외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강생 500여명이 참여하여 2월 28부터 16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지역문화학교는 6월 말 수강생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름특강 프로그램과 하반기 지역문화학교는 추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문화원 사무국(669-5050)과 홈페이지(seosan.cult21.or.kr)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화

원

소

직

■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강의기간 : 2011. 2. 28. ~ 6. 17(4개월)
- 강의과목 : 다도외 29개
- 수 료 식 : 2011. 6. 22(수) (예정)



■ 강화도 문화유적답사 참가자 모집

아래와 같이 강화도 문화유적 답사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답사일시 : 3. 23(수)-회원, 3. 26(토)-학생 및 학부모
- 답사장소 : 강화도 일대 (고인돌 유적지, 강화역사박물관, 고려궁지, 평화전망대, 광성보 등)
- 대 상 : 문화원 회원(회비납입자), 학생 및 학부모
- 접수일시 : 3. 18(금)
- 모집인원 : 각 35명
- 참 가 비 : 10,000원

※ 일정 및 내용은 문화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 | 정 | 소 | 식

2011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서산시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관광 자원을 안내할 '문화관광해설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문화관광해설사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3명

※ 면접 참여인원과 선발 예정인원이 동일하거나 또는 미달이 되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적격요건 부적합 시 선발하지 않음.

○ 자격요건

필수 조건

- 만20세이상 5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상 3년 거주자
- 기본소양을 갖춘자(지역역사·문화관련 유경험자 등)
-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관광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자
- 지속적인 활동 가능 재(해설활동을 함에 있어 시간, 건강 등에 제약이 없는 자)

우대 조건

- 해당분야 전문지식 (예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향토사학자 등)
- 외국어 구사능력 (예 : 외국어 능력시험결과, 주한 외국인, 해외 거주경험, 결혼이민자)
- 유사 해설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안내 가능자 · 취약계층

2.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1년 4월 중 (100시간)

○ 교육내용 :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문화유산 해설 기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관광학원론, 현장학습 등

3. 원서접수기간 : 2011년 3월 14일 ~ 3월 18일, 18:00까지(5일간)

4. 접 수 처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직접접수), 주소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492번지

5.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사진(3×4cm) 2매
- 관련학과 졸업, 경력증명서 1부
- 관련자격증 등 증빙 자료(사본 가능) 1부

※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경력의 경우는 경력 인정에서 제외됨.

6. 선발방법 : 서류전형 후 서산시에서 면접을 통한 교육대상자 선발

※ 문의처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전화(041)660-249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Tel : 041) 660-5666 Fax : 041) 660-5105

http://www.oilbank.co.kr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조재홍 (서산시 음암면) 2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 유충식 (서산시 지곡면) 2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 신권철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유병운 (서산시 예천동) 2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김현숙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고대원 (서산시 음암면) 3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조병근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보성 (대전시 선화동) 200,000원 |
| • 이동복 (서산시 대산읍) 2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장계순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 조한국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김동주 (서산시 해미면) 20,000원 |
| • 김재신 (서산시 동문동) 3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웅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이현웅 (서산시 운산면)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석림동) 5,000원 |
| • 이옥진 (서산시 동문동)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유인석 (대전시 중구) 50,000원 | • 유원자(이사) (서산시 양대동) 240,000원 |
| • 윤계혁 (서울시 마포구) 30,000원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